

美 첫 흑인 대통령 탄생

다극화·진보로 '한 걸음 더'

■ 오바마 시대 세계 질서 일대 변화 예고

美 패권주의 퇴조... 시장중심주의 수정 불가피

오바마 시대는 세계 질서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정권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와 신보수주의 정책이 퇴조하고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각국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강조하는 다자간 외교와 진보적 경제 질서가 도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적 사례였다. 한국은 이같은 세계 질서 속에서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안보적 패권주의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외교 지도력을 추락시켰으며, 오바마 당선인은 누구보다도 이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져왔다. 따라서 향후 오바마정권은 수십 년간 지속돼온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 유럽과 일본 등 우방들과 보편적 동맹국을 물론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과 손잡는 다자주의적 세계질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위협장교도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앞으로 미국의 외교력을 과시하기 위한 적대적 국가들과의 정상 회담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각국 정상들이 미 대선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유럽과 미국 간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U 순회의장인 프랑스의 베르나르 쿠슈네르 외교장관은 "이제 세상은 변해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EU는 더 이상 부수적인 역할에 그치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중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공화당에 비해 미-일 동맹보다는 미-중 협력을 중시해왔다. 경제적으로는 시장중심주의가 쇠퇴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진보

적인 경제질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사태 이후 올 들어 전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을 마비상태로 몰아넣은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오바마 정권의 일차적인 과제다. 자유무역의 원칙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미국 자동차 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오바마 시대를 맞아 이 같은 국제 경제 현안들을 다루는 최초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곳에서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강대국들 간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처음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 준비 공사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때 사용할 환영 사열대 건설공사가 5일(현지 시각) 시작됐다. 연합뉴스

'첫 흑인 대통령' 경호팀 긴장

백인 우월주의 그룹 테러 대비...전담팀 특별 경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었다. 그의 피부색 때문에 각종 백인우월주의 그룹의 테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따라 경호팀이 긴장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 18개월 전인 지난해 5월부터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미국 토안보부 산하 비밀검찰국(US Secret Service)의 보호를 받아왔다. 비밀검찰국이 역대 대통령 후보로서는 전례가 없이 일찍 전담 경호팀을 파견해 오바마를 경호하기 시작한 것. 지난 주 2명의 백인 우월주의자 대니얼 코워드(20)와 폴 슐레셀먼(18)이 오바마 암살을 기도하다가 테네시주에서 체포된 바 있다. 이처럼 오바마는 미국의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백인우월주의그룹이나 신나치

주의자 등으로부터 테러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와 그의 가족들은 현재 각종 중화 기로 무장한 비밀검찰국 특수요원들에 의해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다. 오바마가 당선 연설을 한 시카고 그랜드파크의 연단은 특수방탄 유리로 둘러싸이기도 했다.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미국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명이 현직에 있을 때 암살되고 2명이 다친 아픈 역사가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와 관련, 올해 초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호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걱정들은 그만하시라"고 유권자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

바이든, '조용한' 부통령될 듯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시대가 열린 가운데 '2인자'인 부통령의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관심은 조지프 바이든(사진) 부통령 당선자가 조지 부시 대통령 8년 집권내내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휘둘러온 데다 부통령의 모델을 따를 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체니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바이든 자신도 이미 지난 달 새라 페일린 공화당 부통령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체니를 흉내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니는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위



협한 부통령'이라고까지 했다. 미 헌법상 부통령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상원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 시에만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이든의 대변인인 데이비드 웨이드는 "바이든은 오바마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백악관에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며, 체니 부통령과는 그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의 월터 먼데일 부통령처럼 오바마의 친밀한 조언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긴 정치역정에서 다변으로 '설화(舌禍)'를 자주 빚어온 바이든의 면면으로 볼 때 먼데일 모델이 바이든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셸, 퍼스트 레이디 역할 주목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제 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의 새 안주인이 될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44·사진)여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6일 보도했다. 미셸은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흑인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미국의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서 세련된 도시 여성으로 성장했다. '퍼스트레이디'로 거듭난 미셸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여론은 미셸에게 호의적이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미셸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잘 소화해 낼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미셸은 그동안 편도·편부 가정, 군인가정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개선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미셸이 적극적인 영부인이 되기로 마음먹는다면 시카고 시 정부와 비영리단체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사회 사업에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셸이 어떤 역할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단지 "백악관에 가더라도 각각 10살, 7살인 두 딸 말리아와 샬샤를 위한 엄마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만 공개했을 뿐이다. 한편, 미셸은 남편의 대통령 당선에 확정된 5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 로라 여사의 축하 전화를 받고, 로라 여사의 초청으로 수 주 내에 두 딸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MDPass advertisement for job training and education. Includes text: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전문 직업', '도전하는자의 몫입니다', 'MEET, DEET, PEET 진학설명회', '광주교육원 (062)263-5453'.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Professional Academy). Includes text: '44년 전통 합격률 1위',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광주고시학원'.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Professional Academy) and '행정고시학원' (Administrative Exam Academy). Includes text: '서울에서 출강!', '국비무료', 'www.scukorea.com'.

Advertisement for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7.9 Grade Civil Servant Exam Preparation). Includes text: '직종별 교세관법검정출교보보복소기',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Advertisement for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tudy in Korean Medicine University! Possible in Korea!). Includes text: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